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축제는 지역문화의 꽃이다. 지역문화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접하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지역축제가 정말 많다는 점과, 그럼에도 그 많은 축제를 왜 하고 있는지 가늠은 궁금해진다라는 점이다. 물론 지역문화의 확장고 맞물려 지역축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지역축제를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멋진 축제들도 많아졌다. 그렇기에 축제가 많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점에 따라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예산의 소모나 낭비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모든 문화와 예술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지역축제에 대한 비판

지역축제와 지역문화

은 그 축제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별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유사한 방식과 형태의 축제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축제를 지역문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일변도나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외부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틀에 맞춰 크기만 다르게 찍어 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축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이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중요한 콘텐츠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와 역사문화 자원이 결합되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축제가 일시적 이벤트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딱딱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시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오랜 신뢰와 경험을 쌓아 가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이 제대로 발현된 결과를 담아내야 한다. 간혹 지역축제가 엉망이 되는 이유는 축제를 '도구'로 생각하는 권력

자와 그 주변에서 축제를 통해 '장사'를 하는 이들이 결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역축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첫째, 축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일변도나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외부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축제를 확실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지역축제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지역축제는 '공동 문화' (common culture)를 경험하고 축적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공동 문화는 곧 지역의 특성이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으로 나타난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잘 담아내고 드러냄으로써 지역공동체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부의 대중들 또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맛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일한 기준의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와 지역축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셋째, 지역축제는 지역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축제를 위한 지역의 전문가 및 활동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문화를 함께 일구어 갈 실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일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지수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가장 나쁜 상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정체'를 염두에 두거나 눈치를 보면서 활동할 때이다. 소수 정치인을 위해 다수의 주민 활동가들이 존재할 때이다. 반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는 활동 주체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을 때이다. 정치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만나는 지점에 불과하다. 정치가 전제되고 활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전제되고 정치가 따라와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체와 퇴행은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종교칼럼

40년 후의 당신에게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같이 생활해 본 건 처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미혼이라 자식을 키운 경험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발표하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잠시 40년 전의 나로 돌아가고, 고1이었던 1979년 9월 당시의 나를 떠올려봤습니다.

10·26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부마항쟁, 12·12 사태, 80년의 짧은 봄 그리고 광주. 한 달 뒤면 돌아칠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아무도 모른 채, 평온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고 해도 당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와 집을 반복하는, 그날이 그날 같은, 단조롭기 짝이 없는 생활이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조별 발표가 끝나자 저에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하더군요. 기억하지 못할 거 같아 다시 여기다 훑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며 나의 중학생 시절을 기억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곳에 기록해두기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대, 30대 혹은 40대가

되어서 꼭 그때의 기록을 보고 중학생이던 자신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0대가 되면 중학생들과 함께 이번 코스 그대로 여행해 보기 바란다."

대중 이런 요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40년 전 중학생이던 내가 갔던 그곳을, 당시의 나와 같은 중학생들과 함께, 50대의 내가 그대로 되짚어 가는 걸. 중학생인 자신과 50대의 자신이 대면하는 역사적인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מיד 못만 말들은 여기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KTX를 타고 광주에서 대련까지 한번에 갈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이사회가 수십 년 퇴보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넘겨주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40년간 우리가 애써 땀 흘려 만든 세상이다. 87년의 민주화 항쟁, 98년의 IMF, 2002년 월드컵... 우리는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대중문화 역시 온 세계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환호한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여기

가 너희들이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니 부디 본격적인 인생의 출발선에 들어선 너희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던 자신을 만나,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자신과 더불어 찬찬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젠 아니라고 내뱉게지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생인 당신을 보며 뭔가를 놓치고 지금껏 살아온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중학생인 당신이 아니라, 40년 뒤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 글을 보고 있을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번 여행은 당신의 삶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내가 잃은 그 뭔가를 당신은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을 선물합니다. 부디 잊지 않고 잘 간직 하길 바랍니다.

2059년 9월의 어느 날에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社說

광주·전남 의병 기념사업 경쟁보다 협력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병 기념시설 건립 사업을 각기 따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 의병 역사는 한 뿌리인데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병 기념시설 건립은 전남도가 먼저 시작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이란 이름으로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호남의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33만㎡에 추모·기념·전시실과 체험·교육시설을 갖춘 테마마크와 어린이 전용 체험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구상을 내놓았을 때는 사업비가 200억 원이었지만 최근 480억 원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나주·장성·보성 등 10여 개 시·군이 역사공원 유치전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8월 끝내기로 한 부지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콘텐츠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시가 어등산 일대 부지에 377억 원을 들여 '호남의병 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시 범위는 임진왜란부터 8·15 광복까지의 의병 활동상으로, 추모·전시·체험 관람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데 전남도 역사공원과 콘텐츠와 시설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호남 의병의 역사는 광주·전남을 따르며 놓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임진왜란은 물론 한말 의병 때도 호남 의병의 활동 범위는 광주와 전남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돼 있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국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추진으로 국비 지원 명분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훈처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현 상태로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광주 전남이 비슷한 사업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 노동자 위한 노동행정 펼칠 수 없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전남 지노위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359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18건(5%)에 그쳤다. 이는 전국 13개 지노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제주 지노위의 인정률은 76.8%, 충남 지노위는 36.2%나 됐다.

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보수적인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사·공약위원 3자로 구성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 권리 구제와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더라도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노위가 노동자들의 입증 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관련 실적도 미미하다. 실제 전남 지노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자료 제출 요구 실적은 359건 중 46건(12.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전남 지노위의 현장 방문 조사 실적도 85건(23.7%)에 불과했는데 이는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행태다.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된 사업장에서는 노사 신뢰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전남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원인 등을 냉정히 살펴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다는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최애' (최고로 사랑하는) 부위인 삼겹살이 대중화된 것은 불과 40년 안팎도 안 된다. 삼겹살은 제6갈비뼈나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 아래 북부 부위를 말한다. 지방과 단백질의 조화에 따른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매력이다. 지방 함량이 다소 높은 것이 흠이지만.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이 1인당 한 달에 평균 2kg 이상을 먹지만 옛날에는 기피하는 음식 속에 들었다. 우선한의학적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고기였

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영향으로 육식을 금하면서 더욱 멀어졌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소고기를 선호하는 조상들의 입맛 탓에 돼지고기는 천한 취급을 받았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조선의 사신에게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하라고 했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조선시대 돼지고기 해체도를 봐도 각종 부위가 기록돼 있지만 삼겹살 부위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다 보니 아주 오래된 음

식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것은 빨라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이라는 게 음식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삼겹살은 현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다. 온돌과 부엌으로 된 전통 주택 구조에서는 고기구이를 즐기기가 어렵다. 아파트 가스레인지와 휴대용 가스버너의 등장으로 삼겹살은 비로소 식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물론 1970년대 육수 수사로 수입과 돼지 품종 개량 및 수입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 대량 생산 체계 확립

이 발달된 뺨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고기에 찜장과 마늘을 얹어 채소로 싸먹는 삼겹살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데, '치맥'과 함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때 반드시 먹는 K푸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염려가 커지면서 삼겹살을 파는 식당들의 매출이 줄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감염 돼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니, 이왕 먹을 삼겹살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기 고

즐거운 도서관 나들이



홍운옥  
운남어린이도서관장

와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함께 있는 7-8월의 도서관은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북적거려 도서관지기로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 '독서의 달'이 있는 가을 역시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책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려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반려동물 1000만의 시대에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박현숙 작가의 '관심으로 시작하는 동물 복지' 강연과 어린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안돼요! 라고 말해요' 인형극 공연도 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북 콘서트-하루키의 클래식'을 만나다'는 자신의 작품에 많은 클래식 작품을 등장시키는 소설가 하루키의 '하루키의 도서관'라는 특수성을 잘 활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지난 1년은 도서관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주변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작으나마 변화를 주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무엇보다 도서관 기본에 충실,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전체 장서의 80%를 어린이 도서로 구입·비치함으로써 어린이의 독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동서 대출이 2018년 15%, 2019년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8% 증가해 어린이 독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좋은 책을 구입하고 추천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사람들이 도서관과,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북 콘서트-하루키의 클래식을 만나다'는 자신의 작품에 많은 클래식 작품을 등장시키는 소설가 하루키의 '하루키의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잘 활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은 풍성한 기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도서관, 예술로 인문학하다'를 주제로 열린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현영이 연주와 곡 해설이 어우러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그림 읽어 주는

남자' 이창용이 함께 한 '영화 산책'도 인기가 높았다. 또 광주 시내 일원의 폴리투어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등 예술과 인문학을 생활과 접목시켜 지역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린이를 위한 4차 산업 혁명(스마트 시티)', '인공 지능 & 나, 나답게 살아남기', '우리는 모두 메이커다' '4차 산업 혁명 인문과의 특별한 만남' 등 4회에 걸친 강의와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4차 산업 혁명과 그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 보자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또 광주시 외국인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문광부 선정) 등도 우리 도서관이 의미 있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11월에는 피아니스트 조현영씨와 함께하는 음악회와 강연이 준비돼 있다. 또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씨도 다시 광주를 찾는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도서관 나들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역(국문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